

退溪의 六友詩 類型에 따른 詩의形象과 그 의미

金榮淑*

- I. 서언
- II. 퇴계의 자연과 六友
- III. 육우시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
- IV. 퇴계와 육우시의 의미
- V. 결어

【요약】

退溪 李滉(1501-1570)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130여 편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육우시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五友의 일종인 ‘매화’를 읊은 시에 대한 연구는 8편이나 나왔다. 퇴계가 말한 육우는 松竹梅菊·蓮 와 퇴계 자신이다. 육우시는 이 여섯 가지를 주대상으로 나타낸 시를 말한다. 이 연구는 퇴계의 육우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시적형상을 살핀 뒤 그 의미를 찾은 것이다.

松을 주대상으로 형상한 작품은 5편인데 「詠松」이 대표작이다. 늙지 않는 소나무의 깨끗한 모습을 찬양하고 늘 푸른 본성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竹을 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는 16편이 있으며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대표작은 「郡齋移竹」이다. 이 작품은 장편 서사시로 작가가 풍기 군수가 되어 東軒에 대나무를 옮긴 과정과 옮긴 후의 정감을 시로 형상한 것이다. 대나무와 벗하며 어진 일을 생각하고 소쇄한 풍류, 본래의 마음과 자세, 더럽히지 않음, 높은 표상을 수용하고자 했다. 매를 주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70여 편이다. 대표작은 「季春至陶山山梅贈答二首」이다. 작가 자신이 매화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여 문답형식으로 형상한 시이다. 매화는 주인이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오기를 바랐고, 주인은 맑은 향기가 좋아 빨리 돌아왔다는 내용의 문답을 정감적으로 표현했다. 국화를 주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8편인데 대표작은 「次韻禹景善菊問答六首」이다. 서리 내린 곳에서 작은 떨기 국화의 변치 않는 절의를 시로 썼다. 연꽃을 주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8편이며 대표작은 「雨中賞蓮」이다. 비 내리는 가운데서, 연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양을 아름답게 형상했다.

퇴계는 자신을 제외한 오우시를 통해 ‘소나무의 늘푸름, 대나무의 깨끗함과 높은 표상, 매화의 희고 참된 향기, 국화의 변치 않는 절의, 연꽃의 청정’을 얻고자 했다. 오우를 이익이 되는 벗으로 여겼으며 그 가운데서도 매화와 국화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다.

퇴계는 자신의 비석에 새길 묘갈명을 스스로 지어놓고 별세했는데, 어려서 어리석음, 커서 병 많음, 자신의 뜻과 마음을 아는 이 없음, 현실에서의 겸손, 근심과 즐거움의 공존 등을 나타냈다.

퇴계는 사군자의 하나인 蘭을 오우에 넣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난의 유향을 군자에 견주어 말하지만 퇴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퇴계가 일생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여 수용한 점이 퇴계시 전반에 퍼져 있는데 퇴계를 중심으로 한 육우시에는 그 자연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벗으로 상호 동화된 시적형상을 하고 있다.

I. 서언

退溪 李滉(1501-1570)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130여 편이나 이루어졌다. 일찍부터 도산십이곡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고²⁾ 그 다음이 漢詩에 대한 연구이다. 한시연구에서도 자연과의 관련성³⁾, 사상과의 관련성 연구⁴⁾가 많이 이루어졌다.

퇴계시를 자연과 관련 지은 연구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영물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영물시와 관련한 것으로는 매화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퇴계의 옥우에 관한 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연을 벗으로 삼은 예는 시조의 「四友歌」, 「五友歌」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옥우에 대한 시는 퇴계보다 後代人인 孤山 尹善道(1587-1671)가 水·石·松·竹·月을 시조로 읊은 「五友歌」 때문에 국문학계에서 많이 유명해져서 고산의 「오우가」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있었다.⁵⁾ 그러나 타 작가 작품과의 대비나 한시와의 관련 연구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윤영옥은 오우가의 근본적 확대적 연구를 위하여 ‘友’의 동양적 가치를 『小學』에서 찾고, 孤山의 「尙友賦」와 1618년에 石灘 李愼儀(1551-1627)가 松·菊·梅·竹을 노래한 시조 「四友歌」와 蘆溪 朴仁老(1561-1642)가 梅·竹·松·菊을 한시로 읊은 「四友亭」을 함께 다루어⁶⁾ 벗 노래 이해를 깊고 넓게 하도록 했다.

2) 최신희, 「도산십이곡에 있어서의 言志의 성격」(『한국고전시가작품론』1, 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집문당, 1992)가 대표적이다.

3) 손오규, 「퇴계의 산수문학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 1990)가 대표적이다.

4) 이진, 「퇴계 성리학의 시문학적 변용양상 연구」(동국대 박사논문, 1992)가 대표적이다.

5) 조해숙, 「<오우가>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한국시가연구』1집, 한국시가학회, 1997)과 정익섭, 「<오우가>의 敎示性과 그 정신」(『고산연구』제2집, 고산연구회 1988)이 대표적이다.

6) 윤영옥, 「고산의 오우가」『고산연구』제2집, 고산연구회, 1988

퇴계의 六友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다룬 바가 없고 六友를 소재로 다룬 시 즉 六友詩를 다룬 바도 없다. 고산, 석탄, 노계와 같이 시제를 ‘육우가’로 한 시가 없고 고산 등과 같이 오우를 작품 소재로 다룬 연작시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퇴계가 친구라고까지 하면서 가까이 했던 육우는 다른 시적 대상보다 우위에 두었던 것이며 이들 육우에 대한 퇴계의 정감은 대단했다. 육우를 시구에 노출시켰고 별도로 주까지 붙였기에 퇴계와 다섯 벗 즉 松竹梅菊蓮已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육우시의 범주에 넣어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退溪의 자연과 六友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다. 자연 속에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 속에서 학문의 이치를 발견하고, 자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았다. 『周易』의 ‘窮理’⁷⁾와 『詩經』의 ‘有物有則’⁸⁾ 그리고 『大學』의 ‘格物’⁹⁾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된다. 자연물 속에서 각 사물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 원리를 인간의 삶의 원리와 관련을 지으려는 관점도 지녔었다. 이러한 점을 체계화 구체화하기 위하여 논리를 세우고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원초 유학에서 ‘理’·‘則’·‘道’라는 개념을 구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7) 『周易』, 「說卦傳」,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8) 『詩經』, 「大雅」, 「蒸民」,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彜 好是懿德...”

9) 『大學』, 「格物致知章」, “問嘗竊取程子之意 以補之曰 所謂致知 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10) 윤사순, 「유학의 자연철학」, 『조선유학의 자연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동양문학에서 자연을 바라본 관점을 나타낸 것은 위에서 말한 『시경』이 제일 먼저라 하겠다. 수많은 자연물을 보면서 노래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興比의 방법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후대 주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해졌다.¹¹⁾ 우리나라도 조선에 접어들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화되어 자연, 산수에 대한 시와 노래가 많이 지어지고 불려졌다. ‘자연을 벗삼아’란 말과 같이 옛날 文士들은 복잡한 도성이나 저자거리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을 대상으로 시를 읊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며 자연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도 했다. 넓게는 우주와 천하를 대상으로 했고 좁게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대상으로 삼았다. 山林處士, 隱遁處士로 자오하면서 樂山樂水의 심미안을 지니기 위해 학문을 하면서, 또는 시문을 읊조리면서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려 노력했다. 문예적인 취향이 강한 문인들 가운데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시로 쓰기도 했다.

詩經시대에는 우주 공간의 모든 자연이 대상이 되었지만 후대로 오면서 산수의 자연에 관심을 傾注하기도 하고 좀더 구체적인 사물을 중점 대상으로 삼은 詠物에 관심을 집중하기도 했다. 영물의 많은 대상 가운데서 화가나 문인 학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자연물로 대표적인 것이 梅蘭菊竹의 四君子라 하겠다. 네 사물을 군자로 삼아 범인들 보다 나은 품격을 지녔다고 생각하여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면서 인간으로서 사군자의 表象을 본으로 삼아 고매한 인격을 지니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외 몇몇 대상물을 정해, 四友, 五友, 六友라는 말을 붙여 친구로 삼기까지 했다.

퇴계시에 형상화된 자연은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인 자연이라기 보다는 잠깐 동안 서울에 있을 때와 경남과 단양, 풍기, 순흥 등지

예문서원, 1999) p.28

11) 주희의 『詩傳』 「國風」 「關雎」 편의 註 “興者 先言他物 以引起所詠之詞也”와 ‘螽斯’ 편의 주 “比者 以彼物 比此物也”가 그것이다.

를 踏尋한 자연과 주로 고향인 안동의 도산 주위의 실제의 자연이다. 상상이나 초월의 자연이 아닌 실제의 자연이기에 실감이 난다. 자연 속의 많은 대상물 가운데서도 자신을 포함한 옥우는 퇴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퇴계의 옥우는 퇴계 자신과 다섯 친구이다. 문집에 실린 「溪堂偶興十絶」의 제 6수의 마지막 구 “六友是心降” 밑에 ‘松竹梅菊蓮己爲友’라고 註¹²⁾를 붙였다. 이 주는 퇴계 자신이 붙인 것이다. 己는 퇴계가 자신을 일컬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이 주는 퇴계가 직접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3구에 ‘옥우’란 말을 써 놓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주를 붙여 그 옥우를 설명한 것이다. 옥우에 관한 별도 논설이 있거나 시 제목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기에 지나쳐버리기 쉽다. 그래도 옥우란 말이 3구 속에 들어 있고, 주까지 붙어 있기에 이 부분을 적시한 예는 있지만¹³⁾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옥우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옥우는 송대 劉黻이 詩에서 蘭(靜友), 竹(直友), 蓮(淨友), 松(高友), 菊(節友), 梅(淸友)를 소재로 다루면서 유명하게 되었다.

퇴계의 옥우는 일찍부터 알려지지 못했다. 그 까닭은 퇴계가 옥우라고 밝힌 것이 시의 제목이나 일반 문장 속에서 강조해서 한 말이 아니다. 퇴계가 옥우에 관해 지은 시를 ‘六友詩’라고 명명한다. 퇴계가 많은 자연물 가운데서 자신과 더불어 松, 竹, 梅, 菊, 蓮을 옥우로 간주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2) 「溪堂偶興十絶」의 제 6수의 頭註에는 “一本蓮下有與字爲下有六字”라 되어 있다. 즉 다른 본에는 “松竹梅菊蓮與己爲六友”라고 더욱 분명하게 주를 붙였다.

13) 이 六友에 대해서는 鄭容秀, 「退溪詩의 自然에 대한 考察」(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p.13)과 金在龍, 「朝鮮前期 梅花詩 研究」-徐居正·金時習·李滉을 중심으로-(원광대 대학원, 박사논문, p.150, 2003)에 提示되어 있다.

퇴계의 벗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겠는가? 도학자, 성리학자로 인정되고 있는 퇴계의 벗(友)은 논어 등에 인용된 友의 모습이였다. 輔仁과 三益이였다. 『會友』란 작품에서 以文會友로서 輔仁을 강조했고¹⁴⁾ ‘百年我友期三益’, ‘望望三益友’, ‘汲汲反躬須益友’ 등의 시구를 통해서 삼익우의 관점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友의 규정은 『小學』의 「朋友之道」 11장에 集成되어 있다. 이 友는 퇴계 뿐 아니라 『小學』을 기초로 유학을 공부했던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생각했던 올바른 벗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會友觀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었고 인간과 자연간의 회우관은 육우시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六友詩 類型에 따른 詩的 形象

퇴계의 육우관련 시는 대단히 많다. 石灘이나 孤山처럼 「四友歌」, 「五友歌」라 하여 시체에 友를 붙이고, 하나의 시체 아래 연작시를 쓴 작품은 없지만 단편의 육우시는 다양하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松, 竹, 梅, 菊, 蓮의 작품 한 수와 수식과 사연이 붙은 작품 한 수씩을 유형별로 인용하여 시적 형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퇴계 자신에 대한 작품은 항을 달리하여 다룬다.

1. 松

소나무를 주대상으로 한 작품은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 중 ‘松’과 「怪松」, 「詠松」, 「種松」, 「種松」이고, 다른 사물이나 사건을

14)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5 장34 「會友」 “孔門論會友 以文仍輔仁 非如市道交 利盡成路人”

주대상으로 하며 松을 작은 일부의 보조대상으로 쓴 작품은 많다.

騰龍偃蓋老逾奇 등천하는 용과 샷갓 모양 소나무 늙어 기이한데,
不見先人手植時 선인이 심은 때를 알 수 없다네.
獨有諸孫桑梓感 오직 후손들 뽕나무 가래나무로 고향생각 하듯,
千秋巢鶴故應知 오랫동안 학들이 깃들을 알겠네.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 중 ‘松’)¹⁵⁾

종질이 시를 구하기에 동산 속의 화훼를 읊은 8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起句에서 꾸불꾸불한 모습이 마치 용이 등천하는 것과 같게 느껴져 등용이라 했다. 偃蓋는 소나무의 윗 모습이 마치 샷갓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표현한 시어다. 일찍이 두보도 偃蓋라는 표현을 했다.¹⁶⁾ 늙고 오래된 소나무의 줄기를 용에, 엉킨 잎 모습을 샷갓에 비유한 표현이 뛰어나다. 둘째 구는 선인이 손수 심은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령이 많아 심은 때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手植이라 하여 더욱 정감을 느끼게 했다. 전구에서는 선조들이 심어 놓은 뽕나무 가래나무들을 보고 후손들이 선조들을 생각하며 桑梓鄉을 생각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퇴계는 늙은 소나무를 보고 그러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를 결구의 천년학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나무의 모습으로 연상시켰다. 굵고 오래된 늙은 소나무이지만 학이 둥지를 치고 오래 살아가는 松齡鶴壽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壽의 상징물로 드러낸 것이다.

石上千年不老松 바위 위 천년동안 늙지 않는 소나무,
蒼鱗蹙蹙勢騰龍 푸른 비늘 쭈그러진 등천하는 용모양.
生當絕壑臨無底 벼랑 끝에 자라면서 끝없이 높기만,

15) 이항, 『퇴계선생별집』 권1 장76

16) 杜甫, 「題李尊師松樹障子歌」“陰崖卻承霜雪幹 偃蓋反走虬龍形”

氣拂層霄壓峻峯 기운은 높은 하늘에 떨쳐 우뚝산을 눌렀도다.
 不願靑紅戕本性 푸르름을 누렇게 본성을 상해가며,
 肯隨桃李媚芳容 복숭아 오얏 예쁜 모양 원치 않다네.
 深根養得龜蛇骨 깊은 뿌리엔 귀사골 생기게 하고,
 霜雪終教貫大冬 서리 눈 속에서도 추운 겨울 잘 넘기네.

(詠松)¹⁷⁾

소나무를 읊은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천년 동안 늙지 않는 소나무가 푸른 비늘 모양의 껍질을 하고 하늘로 오르는 등용같은 소나무 모습을 읊었다. 앞의 작품에서는 늙은 소나무였으나 여기서는 늙지 않는 소나무를 등장시켰다. 함련에서는 벼랑 끝의 소나무가 늙름하게 자라는 모습과 기운을 보고 준봉이 압도된다고 보았다. 충충을 이룬 개인 하늘의 기운을 받은 소나무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렸다. 전구에서는 푸르른 본성을 상해서 桃李처럼 되지 말라고 했다. 소나무를 보고 소원한 것이다. 본성을 상하지 말라는 것에서 도학자로서의 성정을 소나무에까지 바라고 원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깊은 뿌리에 귀사골이 생겨 추운 겨울을 잘 넘길 것이라 했다. 귀사골은 송지가 땅 속에 들어가 오래 되면 복령이 되는데 마치 龜蛇 같다 하여 붙인 말이다. 소나무의 생태까지도 잘 알고 지은 작품으로 소나무의 忍冬의 경지를 그려 작가의 정신적 친구로 여기려 하였다.

2. 竹

대나무를 주대상으로 한 작품인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中 ‘竹’은 수식이 없는 일반적인 대나무를 읊은 것이다. 李子發이 퇴계에게 申元亮의 대 그림에 화제를 지어달라는 청을 하자, 퇴계가 지

17) 이황, 『퇴계선생문집속집』 권1, 장3

어준 「雪月竹」, 「枯竹」, 「風竹」, 「孤竹」, 「露竹」, 「老竹」, 「穉竹」, 「雨竹」, 「折竹」, 「抽竹」은 題畫詩이다. 그 외 「種竹」, 「移竹」, 「風竹」, 「雪竹」, 「雪竹歌」, 「畫墨竹」, 「郡齋移竹」 등이 대나무를 주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다른 사물이나 사건을 주대상으로 하며 竹을 작은 일부의 보조대상으로 쓴 작품은 많다.

竹君高節歲寒青 대나무 곧은 절개 추위에도 푸르르나,
此地寒多屢挫生 이곳은 너무 추위 자주 생장이 꺾인다네.
儘把護寒深作計 추위에 보호하려 깊이 깊이 계획세워,
年年看取籜龍爭 해마다 자란 죽순 다투는 모습 보리라.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 중 ‘竹’)¹⁸⁾

중질의 부탁으로 지은 동산 가운데 화훼를 읊은 팔수 중 두 번째 작품이다. 기구에서는 세한 속에서도 대나무의 푸른 고절로 시상을 일으켰다. 대나무를 보고 곧음과 추위 속의 푸르름을 읊었기에 대나무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승구에 이르러 감정은 안타까운 것으로 변한다. 고향의 안동 도산은 너무 추위 생장이 꺾인다고 했다. 다른 작품은 竹을 수식하는 ‘...竹’인데 이 작품만은 수식어가 없는 일반적인 竹이다.

군청에 대나무를 옮겨 심고 쓴 장시를 보자.

君不見 子猷平生酷愛竹 그대는 보지 못했나요 왕자유(휘지)는 평생
대를 지독히 사랑해,
蕭灑風流眞絕俗 소쇄한 풍류로 속세를 끊고,
一日不可無此君 하루도 대 없고는 못 견디어,
坐令百卉來匍匐 온갖 화훼들로 하여금 와서 굽신거리게 했음!

18) 이황, 『퇴계선생문집별집』 권1, 장77

又不見 樂天才調本浮華 또 보지 못했나요 백락천의 재주가 본래는
부화했었는데,

相國亭中變初服
櫻桃楊柳惣莫汚
晚歲飄然入灘曲
我從承明一麾出
故山三載辭麋鹿
鈴齋不有竹千挺
曉夕何以清隈隩
舊林樵悴沒寒烟
新筍縱橫翳凡木
窓前地偏石堪砌
軒外人稀壇可築
忽然霈澤遍農野
我亦攜鑿斷蒼玉
遷辰不待醉兀兀
去故何曾戀碌碌
眼看十復五
儼立相持如伯叔
初來魯卿慰此心
盍歸殷賢枵厥腹
可惜中有誤遭挫

斫頭將軍應爲蜀
杖屨巡簷訝群兒

瓶罐攜泉忙一僕
抽枝展葉漸猗猗
脫絁行鞭更續續
已知涼氣灑琴書
行見高標出牆屋
風敲雜佩韻琤戛
月碎寒金影熠煜

관상국의 정자에서 옛 버릇을 바꾸었고,
앵두 입술, 양류 곡조 다 더럽히지 않고,
만년에도 표연히 팔절탄을 열었음을!
나는 승명려를 한번 휘돌아 나와서,
고향의 사슴들과 삼년동안 하직했네.
이 동헌에 천줄기 대가 없었더라면,
아침 저녁 무엇으로 외진 곳을 밝힐건가.
옛숲은 초취하여 찬 연기에 매몰되고,
새순은 뻗으려 하나 많은 나무에 가려졌네.
창앞이 후미지니 섬돌들을 둘러놓고,
헌함박이 고요하여 화단을 쌓았네.
갑자기 소나기가 온 들에 고루 내려,
내 역시 보습들고 옥뿌리를 잘랐도다.
철에 맞춰 읊기려 죽취일을 기다리랴,
목은 것을 잘라내도 아까울것 없어,
눈으로 열포기 다섯포기 잘 보니,
엄연히 둘러선 것이 형제 같네.
당초에 범노경이 나의 마음 위로하더니,
그 뱃속이 비었다고 伯夷叔齊 돌아갔네.
아깝도다 이따금 잘못으로 상처입은 것 있
으니,

작두장군(嚴顏)은 응당 촉나라를 위했다네.
지팡이 짚고 둘러보니 여러 아이들 의아해
하고,

항아리에 샘물 긴느라 종 한 사람 바빴네.
가지 뻗고 잎새로워 볼수록 아름답고,
껍질 벗고 뿌리 뻗음 이어져 끊이지 않네.
서늘한 기운 책과 거문고에 뿌려짐 알겠고,
현걸한 그 표상이 담장 안팎에서 풍겨나네.
바람이 꽤욱 울려 운율이 맑디 맑고,
달빛은 금부순 듯 그림자 아른아른,

千尋強寫笑文同	높은 즐기 억지로 그리던 文同을 비웃고,
萬夫錯比嗤杜牧	십만 장부에 잘못 견론했다니 杜牧之도 치사하다.
世人區區鶴又州	세상 사람들 구구하게 학 타고 양주고를 나니,
誰肯同歸節也獨	누가 힘께 돌아가리 홀로 절개 지킴으로,
荒哉酒放林下七	거칠도다 竹林七賢(阮籍, 嵇康, 山濤, 向秀, 劉伶, 阮咸, 王戎) 술로 방일했고,
邈矣詩豪溪上六	멀도다 竹溪六逸(李白, 孔巢父, 韓沔, 裴政, 張叔明, 陶沔) 시로만 호탕했네.
儻有翩翩丹穴禽	행어나 펼 펼나는 단혈의 신선 학이,
千載回翔此棲宿	천년만에 돌아와서 여기에 깃들까.
老我年來冷淡生	늙은 이몸 요즘와서 싸늘한 삶이지만,
相對寧憂食無肉	대나무와 상대하고 고기 없을 걱정 앓으리.
從今更歎衛公賢	위무공의 어진 일을 다시금 탄미하여,
一篇淇澳前心讀	「기옥」 한편을 맑은 마음으로 읽으리라.
何必柴桑歸去來	하필이면 도연명이 시상으로 돌아올제,
白衣悵望東籬菊	동리의 국화 따며 백의인을 한탄하며 바라리오.

(「郡齋移竹」) 19)

퇴계가 49세 때인 1550년 4월에 풍기군수가 되어²⁰⁾ 동헌에 대나무를 옮겨 심고 지은 것이다. 이 때 심은 대나무를 후대 사람들이 ‘先生竹’이라 하고 소나무를 ‘先生松’이라 불렀다.²¹⁾

작품 처음부터 ‘君不見’이란 영탄구를 써서 악부시의 노래맛이 나도록 짓구를 엮었다. 근체시가 아닌 고풍의 면모를 보이려 했다. 총 48구의 장편 고시인데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뉘어진다. 제 1단

19)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1, 장 44~45

20) 8월에 단양군수로 나왔다가 형인 大憲公이 충청감사에 제수되었다. 단양이 충청감사의 관할하에 있기에 10월에 풍기 군수로 전근되었다.

21) 『文集攷證』에 “豊基豊樂亭後 有叢竹 至今稱爲先生竹”이라 되어 있고, 『年譜補遺』에 “郡人至今爲先生竹 又有手植松 亦稱先生松”이라 되어 있다.

락은 1구부터 8구까지인데 王徽之와 백거이의 고사를 원용하여 영탄적인 표현을 했다. 제 2단락은 9구부터 13구까지로 서울에서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군청화단의 잘 자랄 수 없는 대나무를 보고 느낀 감회를 쓴 것이다. 제 3단락은 15구부터 26구까지로 대나무를 캐서 옮기는 과정을 시로 쓴 것이다. 제 4단락은 27구부터 42구까지로 대나무를 옮겨 심고 나서 쓴 정회이다. 제 5단락은 43구부터 끝까지인데, 결론으로 작가 자신이 대나무와 벗하면서 생활하겠다는 정회이다.

1단락을 구체적으로 본다. 악부시의 관용구이기도 한 ‘君不見’을 써서 독자들에게 영탄조로 듣기를 강조했다. 대나무를 사랑한 王徽之는 명필 王羲之의 아들로 대나무를 지극히 좋아한 사실을 4구까지 시로 썼다. 왕휘지가 어떤 사대부집에 있는 좋은 대나무를 보고 싶어 수레를 타고 대나무 아래로 가서 읊조리고 휘파람 불기를 오랫동안 했다. 주인이 물 뿌리고 청소하고 앉으라 해도 돌아보지 않고 대나무만 酷愛한 사실²²⁾, 대나무를 보고 ‘此君’이라 한 사실²³⁾과 여러 화회 가운데서 으뜸임을 보지 못했느냐고 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영탄구로 백거이와 대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 썼다. 백거이가 전임정승 關播의 정자 동쪽에서 병들고 시든 대나무를 손질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한 사실이 기록된 「養竹記」의 내용과 백거이의 愛妓였던 앵도와 양류의 아름다웠던 모습, 백거이가 항주자사로 있을 때 사재를 털어 시내를 막아 ‘八灘曲’을 만든 사실을 시로 썼다. 대나무를 좋아한 중국문인 두 사람과 관련고사를 보지 못했느냐고 했다. 이 일단락은 청유적인 기법으로 독자들을 환기 시키고 작가도 대나무를 좋아한다는 의미를 암

22) 『晉書』「王徽之傳」, “時吳中一士大夫家有好竹 欲觀之 便出坐輿造竹下 諷嘯良久 主人洒掃請坐 徽之不顧 將出 主人內閉門 徽之便以此賞之 盡歡而去”

23) 위의 책, 같은 곳 “(徽之) 嘗寄居空宅中 便令種竹 或問其故 徽之但嘯詠指竹曰 何可一日無此君耶”

시하는 구실도 한다.

제 2단락은 홍문관을 나와 풍기군수가 되어 와서 보니 군청 동헌의 화단에 심어 놓은 대나무를 볼 수 있어 기쁘나 다른 숲에 가려 제대로 자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작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관직에 있느라 3년이나 고향에 가지 못한 안타까움도 함께 나타냈다. 고향의 麋鹿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 그루의 대나무를 볼 수 있어 위안이 된다는 의미도 암시하고 있다.

제 3단락은 옮겨 심는 과정을 소상히 그린 묘사문과 같다. 창 앞의 공간, 섬돌의 위치, 화단의 위치, 소나기 내림, 목은 대나무 뿌리를 자르는 모습, 심은 후의 모습, 군수인 작가가 직접 대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정감적으로 묘사했다. 죽취일인 5월 13일에 옮겨 심어야하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앞당겨 4월에 옮겨 심는 작가의 好竹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당나라 범노경이 섬서의 使院內에 대나무를 심고 「叢竹歌」를 지은 사실²⁴⁾, 伯夷叔齊의 절의, 속이 빈 대나무의 품성, 고을 지키다 머리 잘릴 뻔한 嚴顏²⁵⁾의 용맹을 시구로 형상화 했다. 斫頭將軍은 張飛에게 잡혀서도 巴郡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도 항복하지 않은 엄안을 가리킨 것이다. 작가의 「郡齋移竹」이 범노경의 「송축가」에 배경했음을 알리고, 은나라 현자들처럼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아울러 드러냈다. 대나무의 곧음 뿐만 아니라 속이 빈 허심의 품성을 작가도 좋아함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애석하게 상처를 입은 대나무를 보고 촉나라 작두장군에 비유하여 용감하고 위세당당한 기상을 찬양했다.

제4 단락은 심은 후 대나무의 성장과정과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작가는 지팡이 짚고 완상하고 있고 노복이 물주는 광경, 옮겨 심은 대나무가 가지 뻗고 잎이 새로워지는 모습, 꺾질

24) 『文集攷證』, “唐職方郎中范魯卿 於陝西使院內種竹 作叢竹歌”

25) 『三國志』, 「蜀志」‘張飛傳’

이 벗겨지고 뿌리가 자라는 모양을 묘사한 후 작가가 느낀 묘미를 시로 형상화했다. 작가의 심미안에 나타난 涼氣와 高標, 바람과 패옥소리, 달빛과 그림자의 형용은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주관적인 작가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느낌이다. 그 다음부터는 앞 단락에서와 같이 중국 사람을 거론하며 작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화가이며 문인이었던 文同과 蘇軾이 주고받은 고사를 바탕으로 ‘千尋’의 대나무를 억지로 그린 문동의 잘못을 짓구로 나타냈으며, 소식이 문동의 시를 화답하면서 두목이 십만 장부에 비유한 재주를 비웃은 내용과 ‘萬夫’를 인용하여 짓구로 형상했다. 작가 퇴계는 문동처럼 어색한 과장법이나 두목처럼 부적절한 비유법을 비웃은 소식의 뜻을 수용하여 시적 형상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나무에서 고사가 되어 버린 천심과 만부를 짓구로 형상함으로써, 문동과 소식의 화답시와 관련된 고사를 상상하게 하고, 대나무의 실제 모습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楊州鶴’, ‘竹林七賢’, ‘竹溪六逸’ 고사를 배경을 시로 형상하면서 양주자사로, 양주부자로, 학을 타는 등 세 가지를 가지고 싶어 한 속세의 탐욕자들에게 대나무의 굳은 절개를 교훈으로 보여주고, 죽림칠현의 황탄과 죽계육일의 은일을 대나무의 기상과 견주어 은유적으로 貶刺하고 있다. 이어서 언젠가 단혈산에 사는 학이 깃들어 태평세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5단락은 결론으로 노년기를 맞은 작가의 삶의 지향을 보여준 것이다. 작가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면서 『詩經』의 「衛風」‘淇澳’편을 읽으며, 衛나라 武公이 90세에 이르도록 밤낮 게을리 하지 않고 훈도를 듣고자 한 점을 경탄한 것은 작가가 무공을 본받아야겠다고 한 것을 강하게 암시한 시적 형상이다. 반면에 퇴계는 도연명이 동리에서 국화 딸 때, 흰 옷 입은 어떤 사람이 강주자사가 보낸 술을 들고 온 것과 같은 행운은 바라지 않는다는 삶의 지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고기 없이는 살 수 있어

도 대나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先代의 시를 잇기에 활용하여 공자와 소식의 삶의 정신을 본받겠다는 지향점도 나타냈다. ‘故事(王徽之와 白居易의 대나무에서 얻은 교훈) 강조→풍기 군청 동헌의 화단 광경→移竹의 사실적 표현→移竹 후의 서정과 鑑戒→만년의 삶과 지향’의 구성으로 된 시적 형상이다. 대나무를 益友로 생각하면서, 대나무를 통해, 瀟灑한 風流(絶俗), 본래의 마음과 자세(初服), 더럽히지 않음(莫汚), 서늘한 기운(凉氣), 높은 표상(高標)을 취하려는 작가 퇴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梅

매화에 대한 작품은 오우시 중 가장 많다. 퇴계가 일찍부터 자신의 매화관련 작품을 모아 『매화시첩』을 만들고 손수 써서 家藏本으로 만들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퇴계의 매화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²⁶⁾ 매화를 주대상으로 한 작품은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 중 ‘梅’, 「梅塢清香」, 「梅贈主」, 「梅梢明月」, 「梅花」, 「梅花詩」, 「觀梅」, 「代梅花答」, 「代梅花答」, 「盆梅答」, 「漢城寓舍盆梅贈答」, 「季, 春至陶山山梅贈答」, 「主答」,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 「陶山月夜詠梅六首」, 「詠梅三絶句」, 「詠梅」... 등 70여 편이나 된다. 다른 四友에 비해 월등히 많다. 퇴

26) 홍우흠, 「퇴계의 매화시첩에 대한 연구」, 『인문연구』4호, 영남대학교, 1983.
왕소, 문종명 역, 「퇴계선생과 매화정신」, 『퇴계학보』43, 퇴계학연구원, 1984.
王甦, 「退溪詩의詠梅詩」(중문), 『퇴계학보』41집, 퇴계학회, 1984.
鄭錫胎, 「퇴계의 매화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이택동, 「퇴계 매화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89.
鄭錫胎, 「퇴계의 매화시에 대하여」, 『퇴계학연구』5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1.
김태안, 「퇴계의 매화시 고찰」-이상주의의 형상-, 『안동문화』6,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5
손오규, 「퇴계 매화시의 의상」, 『반교어문연구』10집, 반교어문학회, 1999.

계 친필 『매화시첩』이 문집과 별도로 간행되어 있고, 기존연구에서 문집과 대비한 도표까지 제시되어 있기에²⁷⁾, 구체적으로 시제를 다 밝히지 않는다.

다른 사물이나 사건을 주대상으로 하며 梅를 일부의 보조대상으로 쓴 작품도 많다.

眞白眞香世外姿	참된 흰 참된 향기 세상 밖 모습이니,
市橋官閣總非宜	저자 거리 관청 집엔 참된 꽃 아니라네.
杜陵枉費天工句	두보는 명구 얻으려 헛된 수고 했으니,
直待逋仙作已知	임포가 이미 알아준 것 기다리네.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 중 ‘梅’) 28)

퇴계의 수많은 매화시 가운데서 제목에 수식이나 상황을 부여하지 않고 ‘매’라고만 쓴 것은 이 작품뿐이다. 매화의 흰 색깔과 그 은한 향기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자와 관청에 편 많은 꽃은 모두 마당하지 않다고 했다. 매화시 잘 지으려 한 두보와 실제로는 혼자 살면서도, 梅妻鶴子로 혼자 살지 않은 林逋를 나타내 매화의 동양적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매화의 아름다움을 ‘眞白眞香’에 두고 읊은 작가의 매화관이 잘 나타나 있다.

퇴계가 매화와 친구로서 문답한 문답시를 보도록 한다.

寵榮聲利豈君宜	총애와 명성 어찌 그대에게 맞습니까,
白首趨塵隔歲思	노인의 속세살이 해를 두고 생각했습니다.
此日幸蒙天許退	물리가길 윤택함은 오늘의 다행이니,
況來當我發春時	마침 내가 꽃피울 때입니다.

27) 金在龍, 「朝鮮前期 梅花詩 研究」-徐居正·金時習·李滉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의 부록: 「퇴계『매화시첩』과 『문집총간, 퇴계집』의 詩名비교」에 매화시첩 소재 62편과 거기에 실리지 않고 문집에만 실려 있는 10편 등 총 72편을 비교하여 도표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28) 이항, 『퇴계선생문집별집』, 권1, 장76

(「季春至陶山山梅贈答二首」 중 ‘梅贈主’)²⁹⁾

매화가 퇴계에게 준 시이다. 사실은 자문시이다. 부귀와 명성과 이익 모두 퇴계에게 맞지 않다고 하며 퇴계의 속세살이 하는 어려움을 한 해가 더 되도록 생각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세살이는 바로 벼슬살이인데, 맞지 않는 벼슬살이를 어떻게 할까? 매화는 끊임없이 생각했는데, 오늘 물러날 것을 운허 받고 돌아왔으니 다행이며 마침 매화 필 때이기에 더욱 반갑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시에 답한 퇴계의 시를 보자

非緣和鼎得君宜 술의 간 맞추려고 그대 얻으려 한 게 아니라,
 酷愛清芬自詠思 맑은 향기 너무 좋아 스스로 시 읊기 때문이라오.
 今我已能來赴約 이제 나는 기약 지켜 돌아 왔으니,
 不應嫌我負明時 내 좋은 시절 저버렸다 허물하지 마시오.

(「季春至陶山山梅贈答二首」 중 ‘主答’)³⁰⁾

기구에서 그대 즉 매화, 매실을 얻으려 한 것은 화정 때문이 아니라 맑은 향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청분을 좋아해 시 읊기가 절로 이루어진다. 和鼎은 술(국)의 간을 맞추는 것으로 『書經』 「說命」의 ‘和羹’과도 통한다. 국의 간을 맞추는데는 매실과 소금을 가지고 했고, 고인들의 시에서도 국술의 간을 맞추는데 매실을 사용한다고 했다.³¹⁾ 나 퇴계는 매화와의 약속을 지켜 이제 매화 있는 고향, 도산으로 돌아왔으니 허물하지 말라고 한 대답에서 작가가 무

29)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5, 장16

30)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5, 장16

31) 黃庭堅의 「古詩上蘇子瞻」에 “古來和鼎實 此物升廊廟”가 있다. (이장우 장세후, 『퇴계시풀이』5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7, p.41)

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매화를 좋아했으며, 고향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 매화와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느낄 수 있다.

자문자답의 시이지만 친구인 매화와의 실제 문답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꽃을 의인화해서 문답을 시로 형상한 것은 王維의 「春桂問答二」³²⁾ 등 예부터 있어왔지만 퇴계는 매화시에서 여러 방법으로 문답시를 지었다. 퇴계 자신이 매화가 되기도 하고 매화를 대신해 말하기도 했다. 매화 가운데서도 도산매 관련 작품이 많은 것으로 보아 도산매와의 交歡이 더욱 깊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菊

국화를 주대상으로 한 작품은 「중길...화훼팔수」 중 ‘菊’, 「韓上舍...十景」 중 ‘菊逕秋霜’, 「次韻禹景善菊問答六首」 중 ‘問菊’, ‘菊答’, 「種菊」, 「次韻謝存齋餉菊」, 「次韻謝金彥遇惠石假山種菊」, 「陶山雜詠」 중 ‘節友社’ 등이다. 다른 사물이나 사건을 주대상으로 하며 菊을 일부의 보조대상으로 쓴 작품은 많다.

秋來無處問群芳 가을이 되니 다른 꽃들 물어 볼 곳 없는데,
獨向霜園擅色香 홀로 서리 동산에서 색과 향기 자랑하네.
只爲眞知陶後鮮 도연명 처럼 국화 잘 아는 사람 드무니,
何人不把作重陽 아무도 움켜잡고 중양절을 즐기지 않네.

(「從姪憑索詠園中花卉八首」 중 ‘菊」³³⁾)

32) 黃堅, 『古文眞寶』 「진집」 王維 ‘春桂問答二’ “問春桂 桃李正芳華 年光隨妻滿 何事獨無花 春桂答 春華詎能久 風霜搖落時 獨秀君知不”

33) 이황, 『퇴계선생문집별집』 권1, 장76

가을이 되어 모든 꽃들이 시들고 오직 국화만 남았으나 도연명처럼 국화를 잘 아는 이 없음을 한탄한 작품이다. 국화라 하면 가을을 연상하고 가을이라면 도연명을 떠올리는데 이점도 일반 시인들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작가는 관점을 ‘擅色香’에 집중시켰다. ‘秋 - 菊 - 陶淵明’을 시적 형상의 기본 구조로 생각하며, 특별한 발상을 하지 않으려 했다. 다만 형상 방법과 양상이 다르다. 기구에서 가을에 모든 꽃들이 시들어 물어볼 만한 꽃이 없다고 했지만 승구에서 국화가 홀로 있음을 강조했다. ‘菊’자를 시구에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국화임을 알 수 있다. 제목이 ‘菊’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轉句의 도연명과 結句의 중앙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절이 되어도 도연명처럼 국화를 가지고 즐길 사람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화를 보고 문답형식으로 쓴 작품을 보기로 한다. 우경선의 問菊答詩를 차운한 작품이다.

常嫌物性有遷移 美者無幾惡轉滋	물성이 변한다는 걸 항상 싫어했는데, 아름다운 것 거의 없어지고 악한 것은 불어납니다.
豈謂滿庭霜下傑 半成蓬艾亦離支	어찌 뜰 가득한 서리 아래 호걸이라 말하리오, 반은 다복썩되고 또 병들었습니다.
今年夏潦坤成痺 黃菊淪貞欲入時 尙有小叢依舊色 含芳無乃恥同期	올여름 장마심해 땅도 병들어, 누른 국화 곧은 절개 변하여 병들려합니다. 오히려 작은 떨기 옛빛과 다름없이, 아름다움 머금고 다른 꽃과 함께 함을 부끄러워합니다.
東園霜露日幽尋 尙憶從前趣興深 不有數叢金間綠	서린내린 동쪽 정원 날마다 찾을 때, 오히려 깊었던 옛 흥취 생각났습니다. 두어 떨기라도 샛노란 빛 없었다면,

一尊何處玩餘陰 어느 곳에 향아리 술로 남은 광경 완상하리오.
 (「次韻禹景善菊問答六首」 중 「問菊」)³⁴⁾

제 1수는 작가가 다복쑈되고 병든 국화에게 변한 모습에 대해 묻는 것이 요지이다. 세상의 물성이 다 변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라지고 악한 것은 불어나는데 중심을 두었다. 세태의 모습과 국화를 연관지워 노래하며 남은 다복쑈되고 병들었는데, 서리 아래 호걸이라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작가는 세상의 물성이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모든 꽃이 다 시들어지고 서리가 내려 모든 풀이 꺾여져도 곳곳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고 피어 있는 국화가 아닌, 물성의 변함에 따라 병들고 다복쑈으로 변한 국화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그런 모습으로는 서리아래 호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화를 준엄하게 꾸중하는 어조로 물었다.

제2 수는 작은 떨기의 국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 1수가 전체라면 제 2수는 부분이다. 심한 장마로 땅까지 마비될 정도의 환경에서 모든 황국이 병들어 절개를 변하려 하지만 작은 떨기가 병들지 않고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아름다움을 머금고 다른 꽃과 함께 함을 부끄러워한다고 했다. 병들고 시들어 절개를 지키지 못한 큰 떨기 국화와 그렇지 않은 작은 떨기의 국화를 대조로 그려, 작은 일부가 큰 전체보다 낫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 3수는 제 2수에 이어 살아남은 두어 떨기 국화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서리 내린 동쪽 정원을 배경으로 하여 ‘서리 : 국화’의 등식을 유지한 채 두어 떨기라도 없었다면 향아리 술로 국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국화의 대답을 들어보자. 세 수로 답했다.

34) 이황, 『퇴계선생문집』, 권5, 장27

坤黃天賦我何移 憔悴猶承雨露滋 滿地風霜三徑裏 陶翁相待好撐支	타고난 누른 빛 내 어찌 변하겠소, 초취함을 지니면서 이슬비에 자랐습니다. 땅가득한 풍상의 세길 속에서, 도연명 기다리며 지탱하고 있으리이다.
紛紛受變知何事 漠漠懷貞向此時 爲報靈均休歎息 殘芳猶足與君期	어지러이 변해가니 그게 과연 무슨 일고, 잠자코 곧음 지켜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영균(굴원)에 알렸으니 탄식하지 말지어다, 남은 꽃다움으로 그대와 함께 기약하리이다.
衆芳蕪沒已難尋 變到金英恠亦深 不信黃裳元自吉 枉將妖氣眩晴陰	여러 꽃들 없어져서 이미 찾을 곳 없고, 황금 꽃빛 변했다면 변괴 또한 깊으리이다. 누른 치마 처음부터 길함을 믿지 않더니 잘못 요사스런 기운 섞여 맑음 흐림 혼동되리 이다.

(「次韻禹景善菊問答六首」 중 ‘菊答’)³⁵⁾

제 1수는 타고난 누른 빛을 변치 않는다고 항변한 것이다. 천부적인 누른빛은 변하지 않으며 초취한 모습으로 이슬비에 자랐다고 했다. 問詩에서 황국이 변하고 병들려고 한다는데 대한 반론으로 누른 빛은 천부적이라 했다. 하늘이 부여해 타고난 것이기에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坤黃’의 황은 땅 전체를 황색이라 이르는 말이기에도 正色이요 중앙색이다. 국화는 이 정색을 지니면서 초취해 보이지만 이슬비 속에 자란 고결함을 승구에서 강조했다.

전구에서는 풍상이 가득한 三徑을 떠올렸다. 세 길은 蔣詡, 陶淵明 등³⁶⁾에 의해 유명해졌지만, 벼슬을 떠나 전원 속에 살면서 벗

35)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5, 장27

36) 兗州刺史였던 蔣詡가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의 정원에 松徑, 菊徑, 竹徑을 만들어 은거했고, 도연명도 귀거래사에서 “三徑就荒 松菊猶存”이라 했다.

하기 위한 松菊竹의 길이다. 여기서 도연명 기다리며 몸을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蔣詡의 菊徑보다는 陶淵明의 菊徑으로 형상했다.

제 2수는 세상의 일들이 어지럽게 변해가도 국화와는 상관없다고 시상을 일으켰다. 승구에서는 잠자코 정절을 생각하며 꽃피울 때를 기다렸다고 했다. 굴원의 이소경을 생각하며 난초 혜초가 변하여 향기 없음을 탄식하지 말고 국화가 있으니 작가와 함께 기약하리라고 했다.

제 3수는 세상의 변괴를 경계한 시이다. 변하지 않는 황금 빛이 변했다면 변괴라 했다. 주역의 黃裳元吉³⁷⁾ 을 믿지 않더니 요사스런 기운이 맑음과 흐림을 혼동하게 됐다고 인정 사태를 한탄하고 있다.

5. 蓮

연을 주대상으로 한 작품은 「蓮亭小集」, 「採蓮精舍」, 「安東愛蓮堂」, 「淨友堂」, 「濂溪愛蓮」, 「濂溪愛蓮」, 「雨中賞蓮」, 「榮川雙清堂蓮塘」 등이다. 다른 사물이나 사건을 주대상으로 하며 연을 일부의 보조대상으로 쓴 작품은 많다. 「濂溪愛蓮」 두 수는 黃仲舉와 鄭子中的 請으로 지은 題畫詩이다.

大葉盤盤小葉田	큰 잎은 둥글 둥글 작은 잎은 둥글 둥글
紅粧明媚擁蒼煙	예쁜 화장 밝은 모습 푸른 안개 안고 있네.
微風颭蓋時時動	가는 바람 일산을 때때로 움직이고,
急雨跳珠箇箇圓	소나기 구슬 튀기니 날날이 둥글도다.
晦父欣逢數君子	주자는 몇몇 군자 만남을 기뻐했고,
濂翁愛說濯清漣	염계의 애연설엔 밝은 물에 씻었다네.

37) 『周易』「坤卦」(六五), “黃裳 元吉”

憑闌盡日追餘賞 온종일 난간 기대어 남은 감상 좇으니,
 陡覺襟懷已灑然 마음 속이 시원함을 별안간 느끼겠네.
 (「榮川雙清堂蓮塘」)³⁸⁾

영주의 쌍청당의 연못을 보고 읊은 것이다.

수련에서부터 크고 작은 연잎과 연꽃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盤盤’, ‘田田’의 형용사는 연잎의 의태어다. 화장을 한 듯이 고운 연꽃이 푸른 안개를 안고 있다는 표현에서 작가의 오묘한 심미안적 관점과 묘사력을 발견할 수 있다. ‘紅粧’과 ‘蒼煙’에서 꽃과 안개의 색채적 조응과 신비함마저 느끼게 한다. 함련에서는 미풍과 급우로 인하여 연잎에 일어나는 현상을 동적으로 형상했다. ‘時時動’과 ‘箇箇圓’의 對仗은 일산 모양의 연잎과 구슬 모양의 물방울의 미묘한 동적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경련에서는 蓮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朱子와 濂溪를 對仗으로 세워 그 두 사람이 남긴 시와 문³⁹⁾을 용사하여 點化的 형상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퇴계의 도학적 사유와 사물관을 찾을 수 있다. 미련에서는 쌍청당의 난간에 기대어 느낀 灑然한 작가의 마음을 드러냈다.

畫樓東畔俯蓮池 그림 누각 동편 언저리 연못을 굽어보니,
 罷酒來看急雨時 술자리 끝내니 급한비가 내리네.
 溜滿卽傾欵器似 연잎이 젖혀질 땐 기울어진 그릇 같아,
 聲喧不厭淨襟宜 요란한 소리도 싫지 않고 옷깃 깨끗해지는구나.
 (「雨中賞蓮」)⁴⁰⁾

38)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4 장26

39) 朱熹의 시 「君子亭」의 “相逢數君子 爲我說濂翁”, 周敦頤의 「愛蓮說」“予讀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40)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4, 장 28.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연을 감상한 작품이다. 소나기가 내릴 때의 짧은 시간 사이의 연잎의 움직이는 모습과 청정한 그 모습을 보고 작가의 마음도 따라서 맑아지는 情懷를 읊었다. 연잎 위에 빗물이 고이려하다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연잎이 젖혀질 듯한 모습을 기울어진 그릇에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두 수 모두 蓮에 비가 와서 잎과 꽃을 깨끗이 씻은 모습을 보니 작가의 마음도 淸淨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퇴계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四君子와 五友에 들어 있는 蘭을 六友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五友에 포함되지 않는 松을 포함시켰다. 松을 蘭보다 우위에 둔 것이다. 蘭을 제외시켰다고 해서 蘭을 싫어한 것은 아니다. 다른 시의 부분적인 여러 시구에 蘭을 나타냈다.⁴¹⁾ 퇴계가 정한 五友에 자신을 포함시켜 六友라 한 점도 중요하다. 퇴계가 자신을 포함해 六友라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四友니 五友니 한 것과는 다르다. 퇴계가 자신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五友와의 거리를 가까이하고 자신도 다른 五友와 함께 벗으로서 상호 교감을 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梅와 菊을 상대로 문답의 시를 지은 것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IV. 퇴계와 六友詩의 의미

작가가 자신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했는가는 중요하다. 화가는 자화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형상한다. 현대 시인들도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시를 짓기도 한다. 퇴계도 「退溪」라는 시를 남겼다.

41) 장세후, 『퇴계시 색인』(이회문화사, 2000) p.220을 보면 퇴계시 전체에서 난을 나타낸 시구가 40여구나 된다.

身退安愚分 몸이 물러나니 우둔한 분수 편안하고,
 學退憂暮境 학문이 퇴보하니 늙음이 걱정이네.
 溪上始定居 시내 위에 비로소 살 곳을 정하고,
 臨流日有省 흐르는 물에 나아가 날마다 성찰하네.

(「退溪」⁴²⁾)

퇴계의 많은 시 가운데서 퇴계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다. 작가가 고향 도산의 兎溪를 退溪로 고친 후 號로 삼았다. 토계는 작가의 태실이 있는 노송정에서 현재 퇴계 종택이 있는 곳을 흐르는 작은 시내이다. 벼슬자리에 있다가 고향에 와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지만 관직을 수행하느라고 학문을 못한 것을 학문이 퇴보했다고 표현했다. 작가는 자신을 우둔하다고 여겼으며,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점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시내 위란 바로 토계의 위인데 현재는 여기를 ‘上溪’라 부른다. 결구에서는 흐르는 물 즉 兎溪 가에 나아가 날마다 성찰한다고 하여 작가의 실천적 삶을 시로 형상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찰하는 것인데 무엇을 성찰하느냐이다. 성찰의 장소가 ‘臨流’이다.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을 보고, 자신도 쉬지 않고 물처럼 학문을 계속하는가를 성찰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도산십이곡」 제 11수의 “靑山은 옛데흐야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옛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와 같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退溪」는 조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학문을 하겠다는 학문적 삶의 지향을 보여준 것이다.

퇴계의 묘갈명은 자신이 생전에 지은 自銘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지 보기로 한다.

42) 이황, 『퇴계선생문집』 권1, 장 47.

生而大癡 태어나면서 크게 어리석었고,
 壯而多疾 장년이 되면서 병이 많았네.
 中何嗜學 중년에 어찌 학문을 좋아했는데,
 晚何叨爵 만년에 어찌 벼슬을 탐냈을까.
 學求猶邈 학문은 추구해도 오히려 멀어지고,
 爵辭愈嬰 벼슬은 사양할수록 더해졌네.
(중략).....

有山巖巖 산은 우뚝하고 높고,
 有水源源 물의 근원은 길고 멀었네.
 婆娑初服 본래 모습은 가냘팠고,
 脫略衆訕 여러사람의 꾸중은 면했지만,
 我懷伊阻 내품은 뜻 누가 믿으며,
 我佩誰玩 내가 찬 패복 누가 완상하리.
 我思古人 내 옛 성현 생각하고
 實獲我心 진실로 내 마음을 얻었네.
 寧知來世 미래 세계를 어찌 알겠나
 不獲今兮 현세에서도 얻은 게 없네.
 憂中有樂 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樂中有憂 즐거움 속에서도 근심 있었네.
 乘化歸盡 순리대로 살다가 돌아가노니,
 復何求兮 이 세상에 무엇을 다시 구하리.

(「墓碣銘」)⁴³⁾

일생동안의 삶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퇴계가 남긴 글 속에도 여러 모습으로 형상되어 있지만 퇴계가 응축하여 후세에 남길 묘갈명으로 자술한 것이기에 중요하다. 여기서도 크게 어리석다고 했다. 건강하지 못한 허약체질로 병이 많았음이 여러 글에서 나타나지만 병은 수행과 학문을 위한 병이자 자신을 숨기기 위한 병이었기에 시문에 나타난 병의 의미도 크다.⁴⁴⁾는 것도 이해된

43) 趙東元, 『韓國金石文大系』3, 「경상북도편」, 원광대학교출판국, 1983, p.327

44) 신연우, 『이황시의 깊이와 아름다움』, 지식산업사, 2006. 「이황 문학에서

다. 중년부터 만년까지 학문과 벼슬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에서 학문과 벼슬사이의 갈등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산이 높고 물의 근원이 깊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나 학문의 어려움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냘픈 자신의 모습, 신중했던 언행, 깊은 내면세계의 확립을 통해 번민도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수록 옛 성현을 생각하며, 성현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성현의 마음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제 20구의 不獲은 제 18구의 獲과 대조적이다. 獲은 古人으로부터의 獲이고, 不獲은 今世로부터의 不獲이다. 결과적으로 今世는 고인 같은 인물도 없고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퇴계는 자신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당대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憂와 樂을 분리하지 않고 공존의 상황으로 인식한 것도 성리학과 같은 철학적 사유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두 구는 자연 질서 속에 순리를 따르면서, 무욕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살다가 가려는 心態를 형상한 것이다.

퇴계 옥우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위에서 살핀 퇴계 자화상과 옥우를 관련지어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벗을 삼으려면 交歡의 정이 있어야 하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도움이 되는 益友의 면이 있어야 한다. 오우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松을 통해서 '늙어도 꺾끗한 소나무', '오래 되어도 늙지 않는 소나무의 푸르름으로', 눈 ,서리 맞으면서도 본성을 지키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에 매력을 느끼겠지만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던 퇴계로서는 소나무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松을 친구로 삼아 정을 느껴 시를 짓게 된 것이다.

『질병』의 의미」(pp.146-168)

竹을 통해서는 ‘歲寒 속의 高節’, ‘瀟灑한 風流’, ‘높은 標象’, ‘虛心’, ‘涼氣’에 주안이 가 있다. 이 점 때문에 竹을 친구하고, 竹으로부터 이런 점을 얻으려 했다. 竹으로부터 이런 점과 관련된 고사를 이룩한 王徽之, 白居易, 范魯卿, 伯夷叔齊, 衛武公 등의 인물은 긍정적으로 褒揚한 반면에 文同, 杜牧之, 楊州鶴 故事 관련 인물, 竹林七賢은 부정적으로 貶刺했다.

梅를 통해서는 ‘眞白 眞香의 世外姿’, ‘清芬’, ‘出塵의 姿態’, ‘飄玉’, ‘妙韻’, ‘孤風’, ‘綽約天葩’, ‘玉雪姿’, ‘冷艷’, ‘夢魂香’, ‘天香’, ‘清真’, ‘清香’, ‘裊香’, ‘瓊枝’, ‘雪萼’... 등 수많은 시어로 작품을 형상했다. 매화의 향기와 자태에 주안의 초점이 있는데, 퇴계는 이런 매화를 벗삼아 향기와 자태를 交歡 하였다.

菊을 통해서는 ‘渝貞’, ‘霜下傑’, ‘樵悴’, ‘懷貞’, ‘山野趣’ 등의 시어에 주안이 맞춰져 있다. 국과 관련된 인물 도연명을 시구에 나타냄으로써 시적 분위기를 더욱 뽀족하게 하는 한편 퇴계의 자연 취향이 도연명과 유사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퇴계가 菊을 바라보면서 느낀 형용적 감성적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퇴계가 菊을 벗하게 된 교화의 취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취향에 동화되어 자신이 국화가 되기도 하고 국화 주인이 되기도 했다. 이 점은 매에서도 마찬가지로이며 松竹蓮에서도 우정의 정도와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찬가지이다.

蓮을 통해서는 ‘灑然胸襟’, ‘濯清’, ‘清淨’, ‘花中君子’, ‘濂溪’ 등의 표현에 중심이 주어져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퇴계는 蓮을 친구로 삼았다. 연을 노래한 시에는 周敦頤가 많이 등장하는데 퇴계가 「濂溪愛蓮」을 두 수나 지었고, “하늘이 周夫子를 낳아 건곤을 열었다”⁴⁵⁾고 할 정도로 주돈이를 존경했기 때문이다.

퇴계가 옥우를 한꺼번에 노래한 부분을 보면 옥우시의 의미는

45) 이항, 『퇴계선생문집』 권3, 장45, 「濂溪愛蓮」“天生夫子闢乾坤 灑落胸懷絕點痕 卻愛清通一佳植 花中君子妙無言”

분명해진다. 「溪堂偶興十絶」중 옥우를 언급한 제 6수의 전·결구는 “천췌이나 많은 녹을 맨손으로 취할 건가, 여섯 벗 있으니 내 마음이 내려지네”(千鍾非手搏 六友是心降) 이다. 많은 녹을 취할 수도 없다. 조그만 옥망을 하다가도 옥우만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옥우가 있기에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옥우시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松竹菊梅蓮己에 따른 시적 형상의 의미는 無慾에로 귀결된다.

따라서 퇴계의 옥우는 물아일체의 조화로운 대상으로, 퇴계를 心降케 하는 無慾의 벗이며 六友詩에는 퇴계의 心降과 無慾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유와 상징으로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V. 결어

退溪 李滉은 「溪堂偶興十絶」의 제 6수의 轉·結구에서 “千鍾非手搏 六友是心降”이라 하고 ‘松竹梅菊蓮己를 六友로 삼는다’라고 주를 붙였다. 여기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松竹梅菊蓮退溪’를 주대상으로 지은 시를 ‘六友詩’라 하고 그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과 의미를 살핀 것이다.

松을 주대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5편인데, 대표작은 「松」과 「詠松」이다. 늙어도 꺾끗한 소나무, 오래 되어도 늙지 않은 소나무, 늘 푸르며 본성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그렸다. 竹을 주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16편인데, 대표작은 「竹」, 「郡齋移竹」이다. ‘歲寒 속의 高節’, ‘瀟灑한 풍류’, ‘높은 표상’에 주안을 두었으며, 대나무와 관련하여 유명해진 인물들에 褒貶을 가하기도 했다. 왕희지를 포양하고 죽림칠현을 펴자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매화를 주대

상으로 삼은 작품은 70여 편이나 되기에 여러 편을 대표작으로 볼 수 있으나 도산매와 관련된 작품의 비중이 크다. 주안을 두어 묘사한 방법과 시어가 다른 육우에 비해 다양하다. ‘出塵姿’, ‘玉雪姿’, ‘世外姿’ 등의 모습과 ‘天香’, ‘清香’, ‘夢魂香’, ‘裊香’ 등의 향기를 나타낸 것이 중심이 되며 임포를 작품에 투영시켜 매의 전통적 배경을 두텁게 하기도 했다. 국을 주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8편인데, 대표작은 「菊」, 「次韻禹景善菊問答六首」이다. ‘淪貞’, ‘霜下傑’, ‘懷貞’, ‘山野趣’ 등 곧음과 意趣에 주안을 두어 시적 형상을 했다. 蓮을 주대상으로 다룬 작품으로는 「榮川雙淸堂蓮塘」 「雨中賞蓮」이다. ‘濯淸’, ‘淸淨’, ‘花中君子’ 등에 초점을 맞춘 심미안적 관점이 보인다.

퇴계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退溪」와 「묘갈명」(自銘)이 있다. 쉬지 않고 학문을 하겠다는 의지, 현실에서의 겸손, 즐거움과 근심의 공존, 자신의 뜻과 마음을 아는 이가 적은데 대한 所懷와 無慾 등이 시로 형상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을 지녔던 퇴계는 자연속의 친구 다섯과 교환하며 다섯 친구로부터 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정신과 모습을 체득하는 益友로서 상대했다. 퇴계의 육우는 마음을 내리게 하는 무욕의 벗이며, 육우시는 이를 상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주제어 : 퇴계, 육우시, 송, 죽, 매, 국, 연, 시적 형상, 의미

참고문헌

- 李滉, 『퇴계선생문집』, 『퇴계전서』, 『도산전서』
王甦, 「退溪詩的詠梅詩」(중문), 『퇴계학보』41집, 퇴계학회, 1984.
洪瑀欽, 「퇴계의 매화시첩에 대한 연구」, 『인문연구』4호, 영남대학교,
1983.
鄭錫胎, 「퇴계의 매화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尹榮玉, 「고산의 오우가」, 『고산연구』2, 고산연구회, 1988
이택동, 「퇴계 매화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89.
鄭錫胎, 「퇴계의 매화시에 대하여」, 『퇴계학연구』5집, 단국대학교 퇴
계학연구소, 1991.
김태안, 「퇴계의 매화시 고찰」- 이상주의의 형상-, 『안동문화』6, 안동
대 안동문화연구소, 1985
윤사순, 「유학의 자연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예문서원, 1999
손오규, 「퇴계 매화시의 의상」, 『반교어문연구』10집, 반교어문학회, 1999.
장세후, 『퇴계시 색인』, 이회문화사, 2000.
신연우, 『이황시의 깊이와 아름다움』, 지식산업사, 2006.

Poetic Form according to the Type of Toegye(退溪)'s
Yukwusi(Poet of Six Friends) and the Meaning

Kim, Young-Sook

There are more than 130 papers about the poets written by Toegye Lee Hwang (李滉, 1501-1570). But, there has been no study about Yukwusi. There are as much as 8 studies on the poet of 'ume flower', one of the Five Friends. The Six Friends of Toegye are Pine, Bamboo, Ume Flower, Mums, Lotus and himself. Yukwusi is the poet mainly singing these six objects.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oegye's Yukwusi according to the types, examine the poetic form of each type and seek the meaning.

There are 5 works singing mainly pine and "Youngsong" is the representative one. In this work, Toegye praised the firm character of never-aging pine tree and wished it never losing the evergreen nature.

There are 16 works singing bamboo, and the representative one is "Gunjaejuk". This work is a long epic. In this work, the writer sang the course that he became a magistrate of Punggi and transplanted bamboo in the office, and the sentiment that he felt after the transplantation. Accompanying with bamboo, he tried to think generous things, and to accept small joys, the original mind and attitude, cleanness, and high representation.

There are 70 works mainly singing ume flower. The representative one is "...Dosanmaehwamundap". In this work, the writer becomes the ume flower and the owner as well by asking and answering. The ume flower hoped its master to come back leaving his social position behind and the master answered that he came back early because of the pure fragrance in warm sentiment. There are 8 works mainly singing mums. The representative one is "...Gukmundap" 6 poems. The writer wrote a poet about the never-changing integrity of a small mum blossom under frosts. There are 8 works mainly singing lotus and the representative one is "Wujungsangryeon". It beautifully figured the appearance of raindrops falling on the lotus leaves in the rain.

Toegye tried to get the evergreen of pine, cleanness and high representation of bamboo, white and pure fragrance of ume flower, unchanging fidelity of mums, and purity of lotus through the poetry of Five Friends except himself. He thought the five objects as useful friends, and especially thought ume flower and mums as his other self.

Toegye composited inscription for his own tombstone before dying. In the inscription, he wrote about his foolishness in early age, sickness in adulthood, no one to share his will and mind, modesty in reality, and coexistence of worry and pleasure etc.

He did not include orchid, one of the Four Gracious Plants in the five friends. Generally, the elegant fragrance of orchid is compared to a man of honor, but Toegye did not accept it.

The principles that he experienced and accepted living in the nature all his life are spread in the whole poets of him. And Yukwusi, which is centered on himself, shows the poetic image that he assimilated the closest to the nature.

Key words : Topgye, Poet of six friends, Pine, Bamboo, Pume Flower, Mums, Lotus, Poetic form according, Meaning

김영숙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주소: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809-7

전화번호: 053-819-1310 휴대폰 : 010-6712-4847

전자우편: seukam@bhu.ac.kr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